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국토부 “소방·주차 공간 부족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했다. 이번 새 기준은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주차 공간 협소 등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E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의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가중치를 지난 4일 조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주거안전성 가중치는 20%에서 50%로 높은 기준 개선안을 내놓았

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 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 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늘렸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과점수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주차 부문에서 최하 점수(20점 이하, E등급)를 받더라도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총 50점)에서 20점 이상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 이상이 된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은 소방활동의 용이성(25%), 가구당 주차대수(25%)를 포함한 도시미관(2.5%), 침수피해 가능성(15%), 일조환경(10%), 사생활침해(충간소음) (10%), 에너지 효율성(5%),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5%),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2.5%)으로 구성돼 있다. 최재형 강동구 재건축공동대책위원

장은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을 만났을 때는 따로 넣어서 하는 지 알았는데, 주거환경 분야에 넣어서 했다. 소방과 주차 항목 부분만 따로 떼어야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분에 속하면 E 등급이 나오기 힘들다”며 “E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 기준을 급하게 하는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 및 주차대수 항목을 따로 떼어놓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뉴스

한국지엠 노사, 내일 임단협 교섭 재개

한국지엠 노사가 오는 7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4차 본교섭을 열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5일 오전 10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임단협을 여는 데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8일 3차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교섭을 종료한 바 있다. 3차 본교섭 이후 희망퇴직 접수가 마무리 되는 등 상황변화가 있었지만 노사가 비용절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지난 2, 3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진행했던 경영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비용절감 문제를 논의하지는 건 완전한 사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달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바탕으로 임단협 교섭안을 만들고 사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임금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정기승급 시행 유보, 명칭 복귀 등을 내세워 임단협 교섭안을 만들고 사측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희망퇴직 접수 결과 약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잠정 확인

61억8000만원... 과징금 30억9000만원될 듯

금융당국이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총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이로써 실명제 당시 계좌 잔액의 50%(인 30억9000만원)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됐다. 위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원은 지난달 19일 이견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증권사는 이견희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12일 이전에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처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들 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 결과 증권사별 차명계좌 자산 총액은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13개),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증권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이었다. 원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원 검사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인 부원장은 “당시 증권사들이 확인해준 것은 전산기

에서 그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얻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것이 만큼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좌에 있던 자산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삼성 계열사 주식이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27개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김 부원장은 덧붙였다. 삼성증권 계좌의 자산이 예상보다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계열로 편입됐고, 4개 계좌는 1993년 6~7월 사이 개설됐기 때문에 1993년 8월12일에는 활동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원은 또 삼성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연장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다만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이 확인된 만큼 금융원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30억9000만원이다. 원 부원장은 “이견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무주 스키장 막바지 할인 이벤트

11일 폐장... 리프트 주간 3만 반일 2만 렌탈 1만원

부영그룹(회장 이종근)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11일 폐장을 앞두고 막바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오른 중인 슬로프는 중급자용 실크로드 상·하단, 상급자용 미뉴에트, 최상급자용 풀카 등 총 4면으로 중급자부터 최상급자 스키인들이 탈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제공한다. 중급자용 슬로프인 실크로드 슬로프는 6.1k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덕유산 절경과 은빛 설위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리프트 및 렌탈 요금은 리프트

주간 3만원 반일 2만원, 렌탈 1만원으로 책정됐다.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최근 제17회 대구교육감배 스키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스키대회를 유치할 만큼 전문가급 스키장 시설로 정평이 나 있으며 많은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높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11일 폐장까지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두며 좋은 시설의 슬로프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http://www.mdyaresor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기자



매일유업, 신선도 높이는 ‘매일우유 후레쉬팩’ 출시

매일유업은 열고 잠그는 후레쉬팩 뚜껑을 적용한 ‘매일우유 후레쉬팩’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삼각지붕 모양 카톤팩인 우유 포장용기는 갈끔한 개봉이 쉽지 않고 개봉 후 냉장보관시 냉장고 냄새가 우유에 스며들기 쉽다는 게 단점이다. 이번 제품은 패키지 상단에 열고 잠그는 후레쉬팩을 적용해 더욱 신선하고 편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봉 후 냉장보관시 후레쉬팩으로 잠그면 냉장고의 감치와 반찬냄새 등 외부공기 유입이 철저하게 차단되며 개봉이 쉽고 열고 따르기 편리하다. 후레쉬팩의 내·외부에도 우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적용해 우유로만 빈틈없이 채워 개봉 전까지 우유에 공기층이 닿지 않아 신선한 풍미가 오래 지속되도록 했다. 외부 빛 투과를 최소화하는 두꺼운 3중 재질의 패키지도 적용했다. 디자인도 한 손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림감을 높여 잡기 편하도록 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우유팩을 개봉한 후 보관 시에도 마지막까지 신선한 우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뚜껑을 적용한 새로워진 후레쉬팩을 선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

기사제보 288-9700

한 달 휴일 3일뿐... 소상공인 삶의 질 ‘50점대’

소상공인들의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인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 700명 대상 ‘소상공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한 달 평균 3일 휴무, 주 6일 이상 하루 평균 10.9시간 영업 등으로 일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50점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점업·소매업의 경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평균 순수임입이 다른 업종보다 낮아 노동시간·순수임입 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느끼는 사업의 전반적 노동강도는 100점 만점에 65.6점을 기록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